

조지 윈스턴

내달부터 전국 11개 도시 순회공연
신곡 'Beverly' 'Urban Lullaby' 첫 선
'초여름 밤' 7월 1일 광주팬 곁으로

피아노 선율에 자연을 담다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은 한국과 인연이 많은 뮤지션이다. 그의 대표 앨범 'December'는 우리나라에서만 100만장이 팔려나가며 히트를 기록했고, 새로운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앨범 'Plain'을 발표한 당시에는 한국팬들을 위한 보너스 트랙으로 '아리랑'을 연주해 신기도 했고 1998년에는 구제금융으로 고통받는 한국 국민들을 위해 개런티 전액을 '실직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탁했다.

오는 6월부터 서울 예술의 전당을 포함 전국 11개 도시 순회 공연에 나서는 조지 윈스턴이 광주에서 공연을 갖는다. 7월 1일 오후 8시 광주문화예관 대극장.

'여름'을 테마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December', 'Forest', 'Montana' 등 기존 앨범의 수록곡과 함께 새롭게 발

표할 곡들도 처음 선보인다. 또 정통 아일랜드 음악과 1930년대 앨앤비 소울 스타일, 고전 재즈 스타일의 곡 등 다양한 장르를 들려준다.

연주 레퍼토리는 애니메이션 '피넛스누피' 삽입곡인 'Woodstock', 자신의 고향 몬타나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Wood', 고전 재즈 피아노곡 'Cat&mouse', 'December'에 수록돼 많은 인기를 모았던 파벨밸의 '캐논 면주곡', 등이다.

특히 한국 관객에게 첫선을 보이는 신곡 'Beverly', 'Urban Lullaby' 등은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다.

그의 관심은 피아노에만 머물지 않는다. 하와이 전통 악기인 슬랙 키 기타와 하모니카 연주 역시 수준급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슬랙 키 기타 'Opihi moemoe'를 들려주며 하모니카 연주도 감상할 것이다.

조지 윈스턴은 피아노곡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특징이다. 스스로 '전원적 포크 피아노 연주자'라고 부르는 조지 윈스턴은 바탕, 물 등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곡들을 통해 삶에 친밀감을 주고자 한다.

그는 또 자연주의 감성의 작품과 함께 도어스와 빈스 콰랄리 등 자신에게 영향을 줬던 뮤지션들의 곡을 연주하는 앨범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조지 윈스턴은 9·11 사태 때는 희생자들을 위한 자선 앨범을 발표하고, 지난 2005년에는 공연 수익과 앨범로열티 전액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자에게 기부하는 등 사랑을 전하는 아티스트로도 유명하다.

티켓 가격 8만원, 7만원, 6만원, 5만원. 문의 062-220-0541.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의 멋, 세계의 멋으로"

작품구상 위해 광주 찾은 재미작가 변 종 씬



행을 결정한다.

당시 사회적인 문제를 다른 체계 비판적인 그림을 그린 뒤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는 출국 전 우연한 기회에 해수운주사에 들러 지천에 널려 있는 돌부처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는 "서민의 얼굴을 한 부처님이 땅에 누워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모르고 살았나 싶었다"면서 "세월이 흐르고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작품에 묻어나더라"고 말했다.

사흘

일정으로

순천,

여수와

광주 무등산

등지를

둘러본

그는

"선암사의

건축양식은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

하는 뉴욕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고국의 다양한 멋을 작품 속에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가

6년 만에

한국을

찾은

것은

현대 미술의 중심지인 뉴욕 도심 곳곳을 둘러본

모든

첼로나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등 낡은 현악기에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회화를 그려 넣은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이다.

대구

출신인

그가

남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에서

재능을

인정받고

본격적으로

창작에

몰두하던

그는

1978년

돌연 미국

에

들어온

것은

예술 속의

대가들(icons of Art)

을 주



제로 개인전을 갖고 있다.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위해 예정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젊은 작가들은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창조는 그 안에 깊은 철학을 담아야 한다. 기술적이고 방법적인 것에만 빠져있지 말고, 정신적인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는 계명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1회 동아미술대전 대상을 받았고, 뉴욕과 서울 등지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독특한 선 통해 인간의 내면 담아

광주신세계갤러리 강일진 전

독특한 선의 조합을 통해 인간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주상화가 강일진씨가 28~6월3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10여년 만에 개인전을 갖는다.

강씨는 이번 전시에서 '염원을 담은 축제'를 주제로 '염원을 담아서' '붉은 포도주' '낯선 곳에서' '축제' 연작을 선보인다.

남도 주상화단의 선도자였던 고 강용운 화백의 아들이기도 한 그는 중앙대 예술대학 미술과를 졸업하고 원광대



'낯선곳에서'

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한국미협과 전업 작가회 회원이며, 광주미술상 운영위원이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도 문학의 뿌리를 찾아 ...

전남문인협회 내달 6일 나주서 임제 詩 재조명

남도 문학의 뿌리를 찾기 위한 전남문인협회(회장 조수웅)의 '제27회 심포지엄-임제 시의 재조명'이 오는 6월6일 나주문화예관에서 열린다.

'임제 시의 재조명' 석션은 이동문학가 김복씨의 사회로 송수권(순천대 명예교수)·염창권(광주교대)·김양호(여수한영대)교수, 나종입 시인이 나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또 '최부의 표해록 연구' 석션에서는 시인 정숙인씨의 사회로 조수웅 회장이 기조 발제하고, 수필가 서양순·김덕일씨, 시인 최현규씨 등이 각각 발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영모정을 시작으로 천연염색관, 복암리고분, 영상태마파크, 황포돛대 선착장 등 나주일대를 둘러보는 문화

여행 10여곳을 찾는다. 문의 062-363-9956. 010-2226-645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성태 소설집 '늑대' 등

6월의 읽을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는 전성태의 소설집 '늑대'(창비 펴낸)를 비롯한 분야별 도서 10종을 '6월의 읽을만한 책'으로 선정했다.

아버지의 권위와 정체성이 탄생, 진화, 몰락이라는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한 뿐이지 조아의 '아버지란 무엇인가'(르네상스 펴낸)와 '인종'의 사회적

의미를 간결하게 정리한 박경태의 '인종 주의'(책세상 펴낸)도 선정됐다.

이밖에 '근대 중국의 서양인 고문들' (이산 펴낸), '법'을 보는 법 : 법치주의의

(이산 펴낸), '법'을 보는 법 : 법치주의의

의 결과 속'(개마고원 펴낸), '김원장' 기자의 도시학·경제학(해냄 펴낸), '신갈 나무 투쟁'(기성사 펴낸), '정해광, 아프리카 미술을 외치다'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추천사와 목록은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pec.or.kr>)의 웹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제1회 전국 미술제 대상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 강영희

0621364-8700

H.P 010-4608-3700

제1회 전국 미술제 대상

###